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2).

: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만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충분히 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이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면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같이 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 된 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나타나실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오시면, “나는 지금 그분을 봅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당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에게도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구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를 인도하시지 않는 한, 당신이 그 친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막 16:13}.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믿게 될 텐데!

어떻게 말해야 당신이 받아들일까!

오직 주님께서 내가 섰던 그곳에 당신을 이끄신다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2)

1.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개념을 구별하는 방식이죠.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분명한 변화’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다른 차원의 만남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나를 위해 이루어신 일만 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인내 할 수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까지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지금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 블로그에서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좋아서 옮겨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막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막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일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2. 다른 이에게도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제 묵상 글에서 챔버스는 주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구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운 해석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는 체험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지 않으면 그 친구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우리의 친구 역시 주님을 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친구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의 부활이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쓰임 받았느냐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묵상 글 마지막에서 챔버스는 시인 프레드릭 W. H. 마이어스(Frederic William Henry Myers)가 쓴 “성자 바울”이라는 장시(長時)의 97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믿게 될 텐데!

어떻게 말해야 당신이 받아들일까!

오직 주님께서 내가 섰던 그곳에 당신을 이끄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내가 소원하는 그 자리에 이끄실 수만 있다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❷ 소명자가 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우리가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묵상레시피 | 열왕기하 7:1-20 + 마가복음 16:12

아람 대군에 포위 된 사마리아 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1절)

왕 곁에 있던 한 장관은 약속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그 약속을 맨 처음 눈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3-5절)

그들은 곧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까? (9-11절)

왕과 신하들은 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14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6-7, 16-20절)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왕궁에 가서 알리자(9절)

나병환자들은 전쟁 중에도 성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자 어둔 밤길을 걸어 자신들을 버린 성으로 돌아간다. 성은 여전히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멀리서 소리쳤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 절차를 지나서야 왕궁에 도달했다.